

리강, 여름철 다보스포럼 공산업계 좌담회 참석



6월 25일 오후, 국무원 총리 리강이 천진에서 2025년 여름철 다보스포럼 공산업계 대표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신화넷

6월 25일 오후, 국무원 총리 리강은 천진에서 2025년 여름철 다보스포럼(达沃斯论坛) 공산업계 대표 좌담회에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나서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국제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는 각국 경제 발전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안정 속에서 호전세를 이어가는 긍정적인 기본면과 적극적인 효과적 거시정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힘과 기업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많은 외자기업들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 동시에 중국은 외자기업의 발전을 위해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변화가 얽힌 세계에 직면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도전에 대응하고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여 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산업사슬의 분포가 심층적으로 조정되는 배경에서 산업 부대의 품질과 능률성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강력한 산업 부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사슬, 공급사슬이 지속

적으로 최적화되고 품질과 능률성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브랜드, 경로, 기술 등 우세를 중국의 산업 부대의 우세와 결합하여 더 많은 고품질 제품과 봉사를 형성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이 가속화되는 배경 속에서 신기술의 산업화 속도와 교체, 승격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다양한 제품과 봉사의 사용자 범위가 방대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이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기에 각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과학기술협력과 협동혁신을 펼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중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셋째, 국제경제무역 협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 발전 환경의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보호주의, 일방주의, 역세계화가 머리를 쳐들면서 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을 견디고 자체 질주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안정성은 중국의 확고한 대외개방에도 반영되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은 량질의 제품과 봉사를 제공하고 중국 기업들과 과학기술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와 공급의 적합성과 호혜상승을 보다 잘 실현하고 기술 진보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함께 추진하기 바란다. 중국은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변함없이 환영하며 이곳에서 꿈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고 중국 경제와 함께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3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160여명의 공산업계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들은 수년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격해왔으며 현재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세계 정세에서 중국 정책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계획은 특히 소중하다. 외자기업은 중국 경제 전망과 개방협력에 대해 신심을 갖고 있는바 중국 시장에 계속 깊이 뿌리내리고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과 공급 사슬의 원활함을 유지하여 중국 고품질 발전에 융합되는 과정에 기업의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진린이, 오정룡이 좌담회에 참가했다. / 신화넷

이재명, 취임후 첫 시정연설 발표



6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한국 국회에서 취임후 첫 시정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6월 26일 오전,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한국 국회에서 한국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编制补充预算案) 편성 등 내용에 대한 취임후의 첫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이재명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일은 지금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바이오(生物)산업과 제조업의 혁신을 촉진하며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 면에서 이재명은 한국은 국의 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은 연설에서 반도체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이재명은 한국 경제

는 이미 위기에 빠졌다면 투자와 소비가 수축되고 미국정부의 관세정책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작년말의 비상계엄은 가뜰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消费券)을 발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강화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재정을 안정시키는 네가지 방안을 포함된다고 소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정과 실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한국 국회에 당부했다. 6월 4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날 아침부터 직책 리행을 시작한다고 정식 확정했다. 4일 11시, 이재명은 한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 인민넷—조문판

한국 법원, 전 대통령 윤석열 체포령장 기각

6월 25일 저녁,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사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 특검(특별감사팀)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이날 특검이 발부한 윤석열의 체포령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또한 6월 28일 오전 특검 조사에 출두할 것을 윤석열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죄 저촉 혐의 비상계엄 사건은 현재 특검에 넘겨져 후속 조사중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이 줄곧 수사 요청을 거부해온 점을 감안해 강력한 수단을 통해 출두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월 24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체포령장을 신청한 후 윤석열측이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체포령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사건 발동에 대한 제8차 재판에 출석했다. 이는 <내란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특검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후 특검이 기소측으로서 처음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 중앙방송중국

기온 상승 및 극단 날씨 아시아에 큰 타격

6월 23일, 세계기상기구는 <2024년 아시아 기후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작년이 아시아 기록상 가장 덥거나 두번째로 더운 해였으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극단 기상 사건이 발생하여 아시아의 경제와 생태계 및 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폭염이 휩쓸고 간 해양 면적이 기록을 경신했으며 해양 표면 온도는 기록을 시자한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중 아시아 해상의 10년 기온 상승률

은 전세계 평균치의 거의 두배에 달했다. 아시아대륙에 가까운 대평양과 인도양의 해수면 상승 수준은 전세계 평균 수준을 초과했다. 또한 겨울철 강설 감소와 여름철 극심한 고온이 빙하여 큰 영향을 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빙하 붕괴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극단적인 강우, 열대저기압,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피해와 큰 사상자가 나타나고 있다. / 신화넷

나토, 회원국 군비 지출 GDP의 5%로 올리기로

6월 25일, 발표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선언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향후 군비 지출 목표와 관련해 합의의 달성, 2035년전에 년간 군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액(GDP)의 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토 내부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다. 정상회의 선언에 따르면 5%의 군비 지출 목표는 주로 두개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3.5%는 핵심적인 군비 지출에, 1.5%는 관건적인 기반 시설 보호와 사이버 안보 등에 사용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또 2029년에 해당 목표의 리행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여 최종 2035년에 5%의 목표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나토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은 5% 목표를 지킬 필요가 없지만 다른 동맹국들은 반드시 해당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국은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에스파냐는 향후 군비 지출을 GDP의 2.1%로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슬로베니아는 군비 지출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자주적 결정 권리를 보류한다고 표했으며 벨지끄도 단기간에 군비를 대폭 늘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하란은 행 경제학자 디비니는 3.5%의 핵심적인 군비 지출 목표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에 매우 비현실적"이라면서 "많은 회원국들은 현재의 2% 기준조차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 신화넷



6월 25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운데)가 화란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신화넷

图说
我们的
价值观

中华圆梦 万马奔腾

友诚敬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

河北蔚县 焦新德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